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9. 8

주간 달러/원 동향(9/1~9/5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예상에 부합한 미 PCE에도 美 정부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 우려로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 속 상승 출발. 이어 뉴욕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재료 부재 속 수급 요인 반영하며 하락 전환
- 중반, 프랑스 재정 리스크와 일본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재전환 시현
- 후반, 미 구인 건수 감소 소식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 높아지며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, 수급상 결제수요 우위에 소폭 상승. 이어 주 후반, 미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세 유입된 가운데 소폭 하락하며 1,390원대 초반에서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달러/원 환율은 8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킬 가능성 등으로 원화 환율은 다소 하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
- 다만, 고용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측면의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확대 가능성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달러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듯
- 여기에 일본과 프랑스의 정국불안정성 영향도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

1,390.0	1,396.4	1,389.0	1,391.0	+0.9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

예상거래범위

1,380원 ~ 1,395원

유로·엔화 동향 (9/1~9/5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프랑스 정부 신임 투표를 앞두고 재정 불안 고조되며 프랑스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유로화는 큰 폭 약세 보이며 출발
- 중반,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가 기준선 웃돌며 확장세를 보인 측면과 미 고용 관련 지표 부진 소식으로 인한 달러 약세 반영하며 대비 소폭 반등
- 후반, 유로존 7월 소매판매 데이터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며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경제 둔화 우려 불거지자 약세. 이어 주 후반, 미 비농업 고용지표 악화로 연준 빅컷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글로벌 약달러 심화하자 큰 폭 강세 보이며 1.17달러대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683	1.1759	1.1608	1.1714	+0.0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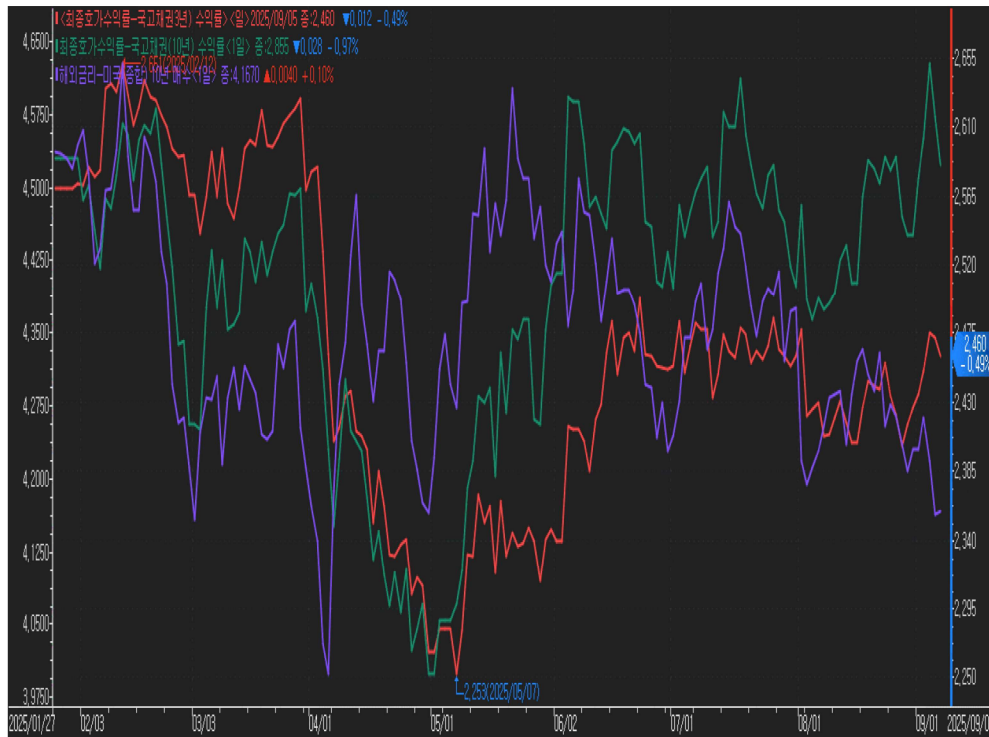


엔화 동향

- 주초, 자민당 간사장 등 핵심 간부 사의 표명에 이시바 퇴진 압박 고조됨에 따라 정국 불안 속 큰 폭 약세 보이며 148엔대로 상승 출발
- 중반, 미 구인건수 감소 소식과 Fed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연준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진 영향으로 달러 대비 소폭 강세
- 후반, 일본 7월 실질임금 상승으로 BOJ 금리인상 기대감 나타났으나 미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강화되면서 약세. 이어 주 후반, 예상보다 크게 냉각된 미 고용지표에 연준 금리인하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큰 폭 강세 보이며 147엔대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6.9	149.1	146.7	147.4	+0.4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9/1~9/5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국고채 30년 입찰에 대한 수급상의 헤지 움직임이 이어진 영향 반영으로 장기 구간 중심으로 상승 출발 후, 그 추세가 이어진 양상 시현
- 중반 들어,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확대에 장기물 금리가 상승한 여파 등으로 국고채 금리 또한 장기 구간에서 약세가 두드러지며 큰 폭 상승
- 후반 들어, 전일 약세가 두드러졌던 장기 구간 중심 금리 상승분 되돌림 되는 국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운데, 미 구인/이직보고서에 따른 7월 계절조정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17.6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확대 속 국고채 금리 하락. 이후 주 후반, 간밤 미 국채 금리 하락과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 대기 속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되며 금리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초반, 뉴욕 금융시장이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알리바바가 자체적 차세대 AI칩을 개발 시험 중인란 소식에 급락 양상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의 반도체 업종이 크게 밀리면서 투심 악화 속 하락 출발. 이어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전일 하락했던 반도체주 반등과 EU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계획 마련 소식 등으로 방산 업종 등이 상승하며 투자심리 개선 속 상승 전환한 국면
- 중반 들어, 미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약화하며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따른 상승 흐름 제한된 양상
- 후반 들어, 미국의 7월 구인/이직보고서가 시장 전망을 하회하면서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영 속 상승하며 3,200선 회복. 이어 주 후반, 8월 고용 보고서 공개를 앞둔 경계감 속에 제한적 상승 나타내며 마감